

테마칼럼

이성재

정치프리즘

김태희

윤와영

李당선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김행

이명박 제 17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축하드린다. 그의 당선의 1등 공신은 두말 필요없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좌파정권의 '열매 없는 이념논쟁'을 "이번엔 바꾸고야 말겠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무려 531만표 차라는 압승을 허용한 것이다. 그에 대한 국민 기대는 당연히 '경제살리기'다. 이제 '실용정부'를 출범시킨 그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를 곧추세울 수 있도록 모두가 화합해야 할 때다.

'겸손한 권력' 당부

그런데 역대 최대 득표차로 당선된 이당선자가 '경제살리기' 이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각 방송사들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당선자는 과반수의 득표를 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50%선에 절묘하게 못 미치는 48.6%의 득표를 얻었다. 늘 '탁월한 선택'을 해왔던 국민들은 그에게 과반만큼은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겸손한 권력"을 주문한 것이다.

투표율도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저였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총 유권자 3765만3518명 가운데 2368만3684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은 62.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02년 16대 대선 때의 70.8%, 97년 15대 대선 73.5%와 비교하면 각각 7.9%포인트, 10.6%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즉, 투표를 하지 않은 37.1%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실했다고 봐야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일찌감치 '이명박 대세론'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선거전 BBK 주가 조작 의혹사건 등을 놓고 각 후보간 물고 물리는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증이 커진 까닭도 있다. 주변사람들과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토론해 보면 "도대체 이번 선거는 차악으로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게 여론이었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기권할 수 밖에 없었던 유권자'들의 마음도 다독여야 한다.

게다가 이 당선자는 BBK 사건 연루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능력있는 후보를 뽑을 수 밖에 없다"며 "불편한 마음"으로 이 당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혹도 말끔히 씻어 줘야한다.

특히 정치적 관심이 높은 호남권이 낮은 투표율과 낮은 득표율도(광주 8.6%·전남 9.2%·전북 9.0%)도 잊지 말아야 할 숙제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화합에 힘써 달라"는 얘기다.

그런 다음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한다. 며칠 전 크리스마스 트리아옴을 구매하려 고속버스터미널에 위치한 새벽시장을 찾았다. 예년과 달리 무척이나 썰렁한 분위기였다. 못내 마음이 무거웠다. 시장상인들의 얼굴은 마치 철쭉처럼 어두웠다.

지난 여름, 대학을 졸업한 필자의 딸은 6개월째 아직도 인턴 중이다. 정식취업을 못한 딸내미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 필자는 선거를 끝내고 이번 주말인 22일자에 이사를 가기로 하고 두달 전 전세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사 오기로 약속한 계약자가 "도대체 집이 나가질 않는다"며 통사정을 한다. 자칫 계약금을 때릴까 노심초사인 것이다. 그의 사정을 봐주자니 필자도 계약금을 때릴 판이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 같은 상황이 어디 필자의 경우만이겠는가? 서민도 아닌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필자의 경우도 이렇진대, 서민들의 현실은 얼마나 절박하겠는가?

BBK 의혹 말끔히 씻어줘야

정치의 본질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흑여 실용주의 노선과 시장논리에 우선해 소외계층이 더 추위지질 않길 이당선자에게 기대한다. 유독 '현장 경제'를 강조하는 한 이 당선자가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5년 후, 이 당선자가 '정말 잘 뽑은 대통령'이었다고 소릴 듣고 박수 갈채 속에 퇴임하길 바란다.

<전 중앙일보 기자·정치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칼럼 박진우. 임신을 하게 되면 옛 어르신들은 '몸에서 100가지가 변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엄마의 몸이 뱃속의 아기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변하는 것이다. 임신 중 각막의 변화뿐만 아니라 망막신경에도 변화가 온다. 특히 임신중독 증상이 있을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해 시력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난다. 혈압을 조절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으나 심하면 실명을 할 수도 있어 전문의의 치료가 꼭 필요하다. 또한 임신 중에는 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당뇨병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고 안기석. 2008년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다. 광주·전남은 방문의 해 슬로건을 "맛을 따라 맛을 찾아"로 정하고, 지역관광차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홍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사업 등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유서 깊은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광주·전남 지역은 발걸 닿는 곳이면 바로 관광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8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와 '전국 청소년 박람회', 함평에서 개최되는 '나비·곤충 세계 엑스포, 고흥우주...

시설 이명박 당선자의 광주·전남 공약 주시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호남고속철도 임기 내 건설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이 당선자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키로 했다. 차기 정부의 정책이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 공약은 '호남 광역경제권 발전구상 8대 프로젝트'와 '남해안시대를 여는 한반도 선벨트(Sunbelt) 구축'을 들 수 있다. 이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전남을 국토 서남권의 경제·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시·도는 주요 현안의 상당수가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돼 있어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당선자의 임기중에 열리는 2012년 여수엑스포는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당선자는 '광양~여수~순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박람회 개최지역을 세계적 시...

사립대 편입학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교육부가 수도권 13개 사립대의 편입학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불법·부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비리투성이임이 드러났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대학의 편입학시험이 이토록 면적점수를 조작하거나 기부금을 받고 입학시키거나 심지어 시험문제지까지 빼내 주기도 한다니 예상할 수 없다. 어떻게 진리와 학문 양심의 전담인 대학에서 이처럼 온갖 부정과 비리가 일...

운전중 TV시청 금지법안 조속히 마련을. 직장에서 퇴근,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운전 중 출근 DMB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신호 대기중에도, 주행중에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운전이 능숙한 택시 기사라도 이를 지켜보는 승객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내가 운전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다. 그렇다고 택시 기사에게 "TV시청 하면서 운전하면 위험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힘들다. 일부 기사는 "내 운전 경력에 20년이...